

CEO Information

2010. 11. 10. (제779호)

신흥경제권의 지속성장 가능성 점검

목차

I. 신흥경제권의 부상과 세계경제

II. 지속성장 가능성 점검

III. 신흥경제권 부상의 의미

IV. 시사점

작성 : 박현수 수석연구원(3780-8251)
hspark@seri.org
정호성, 이종규,곽수중 수석
배영일, 김정우 수석

《 요 약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에 신흥국이 대거 가세하는 등 신흥경제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짧은 기간에 침체를 극복하고 강한 회복세를 보인 신흥경제권이 향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흥경제권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출을 통해 고성장을 구가해온 신흥국이 선진국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신흥경제권은 ① 소득 수준 향상과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내수 확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② 선진국 수출 감소의 충격을 내수 확대와 신흥국 간 무역 증가로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능력 측면에서 볼 때 ③ 신흥국의 기술흡수력이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④ 노동력 부족현상에 직면한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노동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자금유입 등으로 자본투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제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과잉유동성 유입에 따른 버블 발생 가능성과 신흥국 간 갈등 및 정치적 불안 등 위험요인이 있지만, 신흥국은 성장모형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신흥국 경제를 전망한 결과, 2011~2020년 G20 내 신흥 11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6.8%로 G20 내 선진 8개국(G7과 호주 포함)의 성장률 2.2%를 압도할 전망이다.

신흥경제권 부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가 촉진되어 선진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약화되고, 신흥경제권의 경제통합 등으로 남미, 아시아 등에서 지역주의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역내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경제권의 중산층 시장 확대로 '중간시장(Middle Market)'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기업은 '저가격 + 적정 수준 품질'의 중간형 제품 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으로 글로벌 자금흐름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금융투자 기회가 풍부한 신흥국의 금융산업이 고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도권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신흥국 부상에 따른 기회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FTA 등을 통해 교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간시장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과잉유동성이 야기할 수 있는 신흥국 금융버블 등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I. 신흥경제권의 부상과 세계경제

신흥경제권의 약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경제·정치적 중요성이 부각

- 위기 진원지로 충격이 컸던 선진경제권은 회복세가 부진하지만, 신흥경제권은 짧은 침체를 겪은 후 강한 회복세를 시현

- 선진국 경제성장률¹⁾: 0.1%(2008년)→ -3.4%(2009년)→ 2.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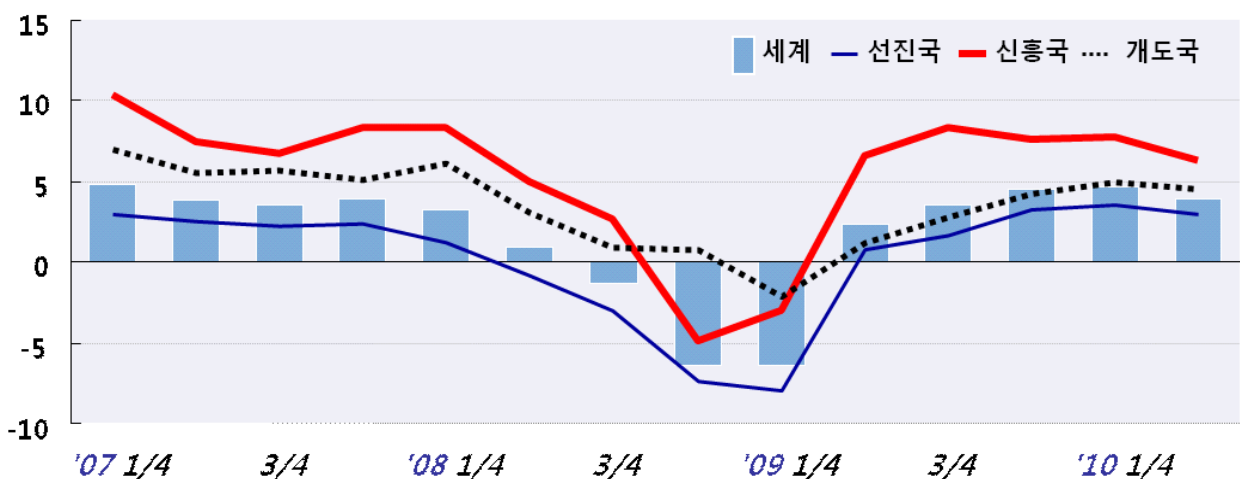
- 신흥국 경제성장률: 5.8%(2008년)→ 1.6%(2009년)→ 6.9%(2010년)

- 신흥국이 대거 가세한 G20 정상회의가 새로운 국제협력체제로 출범하는 등 신흥국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

- G20 국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국이 신흥국²⁾이며, 특히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강 구도(G2)를 형성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 대비 연율)



주: 선진국은 구미 및 아시아(일본, 한국, 대만 등)의 31개국, 신흥국은 BRICs 등 54개국, 개도국은 그 외 119개국

자료: Global Insight

¹⁾ 선진국과 신흥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Global Insight 전망치

²⁾ G20는 기존 G7에 소속된 선진 7개국과 EU 이외의 12개국이 추가되었으며, 이 중 호주를 제외한 11개국이 신흥국

신흥경제권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

□ 경제위기 이후에도 신흥경제권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

- 2000년 이전 선진경제권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던 신흥경제권은 2000년대 이후 고성장기에 진입

· 1980년대와 1990년대 신흥국 성장률은 선진국을 각각 0.4%p, 0.9%p 상회하는 데 그쳤으나, 2000년대에는 그 격차가 4.3%p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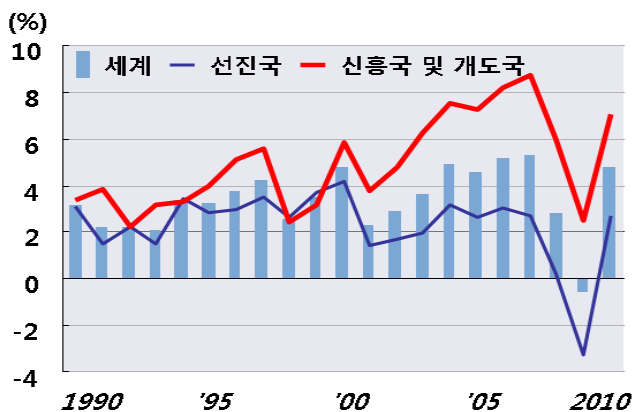
- 신흥경제권의 지속성장은 향후 세계경제의 진로는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 통상, 산업 등의 판도 변화를 초래할 전망

· 신흥경제권의 고성장이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진국의 경기회복에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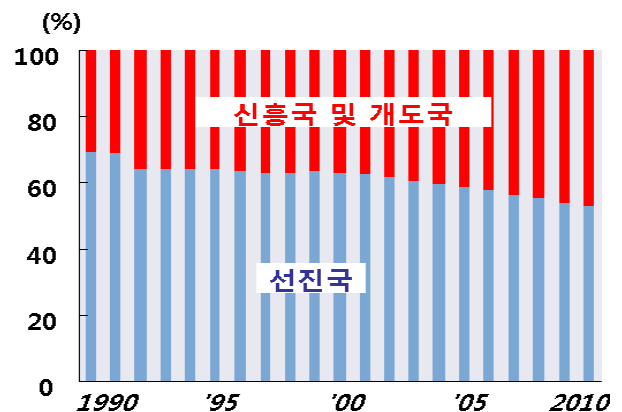
신흥국의 정의

- ▶ 신흥국에 대한 통일되고 정량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국 외의 국가 가운데 경제활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국가를 지칭
- ▶ IMF는 33개 선진국을 제외한 150개 국가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FTSE(Financial Times Security Exchange) 지수는 22개국,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는 26개국을 신흥국 그룹으로 분류

경제성장률



경제 비중



자료: IMF (각 연도), World Economic Outlook.

II. 지속성장 가능성 점검

- 선진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독자적인 성장모델을 통해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

신흥국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찬반 의견

- ▶ 아시아는 수출이 감소해도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 내에서 아시아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 ▶ 중국은 10년 내에 버블이 붕괴하고 경제성장률이 2%까지 급락할 것이다. 이번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위험을 더 키웠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 (자료: ADB (2009. 1. 7.). Financial Crisis Presents Opportunity for Asia, Jeffrey Sachs Tells ADB Audience. News Release.; Rogoff Says China Crisis May Trigger Regional Slump (2010. 2. 24.). Bloomberg.

- G20 내 11개 신흥국의 수요와 공급의 장단기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신흥국의 지속성장 여부를 점검

- 수요 측면: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급감을 내수 주도 경제로의 전환 및 상호 간 무역확대를 통해 상쇄할 수 있는지를 검토
- 공급 측면: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노동인력 증가 및 자본확충의 지속 가능성과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축소 여부를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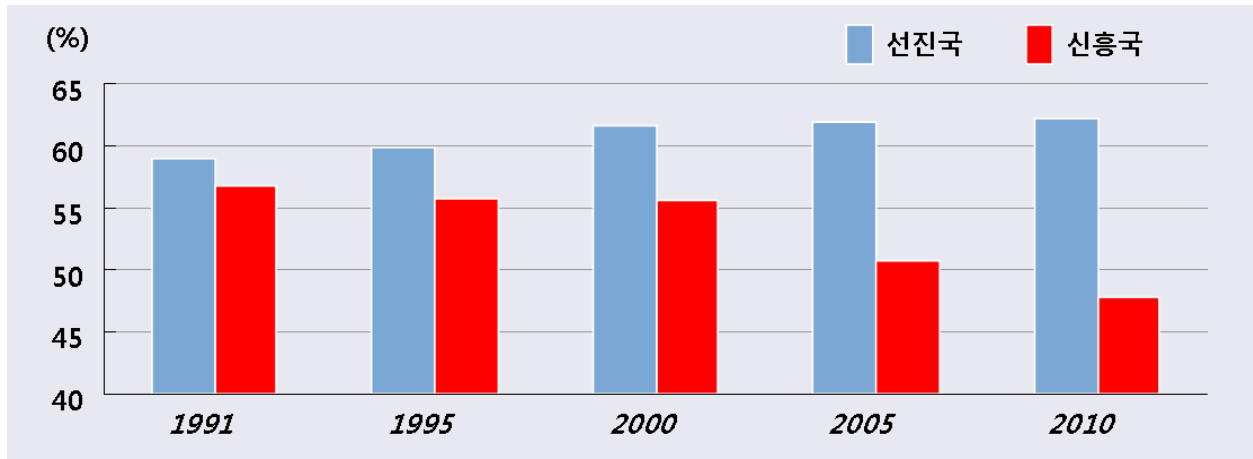
1. 주요 쟁점별 판단

(1) 내수 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 아직은 신흥국이 선진국 소비시장을 대체하여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
-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소비의존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

- 신흥국의 GDP 대비 소비의존도: 56.8%(1991년)→ 47.8%(2010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 비교



자료: Global Insight 자료를 토대로 삼성경제연구소 작성

□ 그러나 신흥국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로 중간소득층이 늘어나며 소비가 빠르게 확대

- 신흥 4개국 처분가능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1990~2000년(4.0%)→ 2000~2010년(14.5%)³⁾

- 수출 주도 성장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 2014년까지 중국과 브라질은 각각 6,000억달러, 5,000억달러를 인도와 멕시코는 2012년까지 각각 5,000억달러, 1,395억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

-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흥국 도시 지역의 인프라 투자 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³⁾ 데이터의 가용성 문제로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4개국 평균으로 대체 (Global Insight)

(2) 對선진국 수출부진을 역내교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 2000년대 초부터 신흥국 간 상호무역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신흥국의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對선진국 수출이 중심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신흥국의 경제자유화 및 양자 간 무역협정 확대에 힘입어 신흥국 간 무역규모가 빠르게 증가
 - 신흥 11개국의 對신흥국 수출액은 2000년 약 2,500억 달러에서 2008년 약 1조 3,600억 달러로 지난 9년간 5.4배 확대⁴⁾
 - 신흥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對신흥국 수출 비중도 증가
 - 신흥 11개국 對신흥국 수출 비중: 1999년(30.9%)→2008년(42.4%)⁵⁾
- 위기 이후 신흥국의 내수시장 성장과 함께 신흥국 간 무역이 증가하여 선진국 소비시장 부진으로 인한 對선진국 수출감소를 일정부분 상쇄
 - 향후 신흥국의 소비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신흥국 간 무역은 對선진국 수출상품 제조를 위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교역으로 변화
 - 중국의 수입수요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중간재 외에 소비재까지 확산⁶⁾
 - 중국의 수입규모는 2009년 1조 1,000억달러로 미국의 56.7%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6조 3,000억달러로 미국(4조 2,000억달러)의 1.5배 규모로 증가할 전망⁷⁾
 - 향후 신흥국 간 무역이 對선진국 무역을 빠른 속도로 대체할 전망
 - 신흥 11개국의 對선진국 수출이 1999~2009년간 약 2.9배 증가하는 동안 對신흥국 수출은 3.8배로 증가⁸⁾

⁴⁾ BRICs 국가의 무역액도 세계무역 총액의 약 13%까지 비중이 증가 (IMF, DOTS.)

⁵⁾ IMF, DOTS.

⁶⁾ 윤우진 (2010). "아시아 무역의 성장과 역내 협력방향"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84호). 산업연구원.

⁷⁾ Global Insight 전망치

⁸⁾ IMF, DOTS.

(3)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가

- 2000년대 이후 수출 확대 및 자국 내 글로벌 기업 수의 증가로 신흥국의 생산성이 빠르게 증대
 -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신흥국은 글로벌 시장으로부터의 학습효과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제고⁹⁾
 - 신흥국 글로벌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의 R&D 투자 및 혁신활동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¹⁰⁾
 - *Financial Times* 500대 기업 중 BRICs 기업 수는 2006년 15개에서 2008년에는 62개로 급증
- 신흥국의 기술흡수력은 이미 상당 수준에 달한 상태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가 활성화되며 선진기업 생산기지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 흡수 능력이 확대
 - 신흥국은 생산성의 핵심 요인인 기술흡수력(technology adoption)과 ICT 사용능력¹¹⁾에서 선진국을 추격할 여력이 충분

생산성 추격 능력 비교

구분	기술흡수력(2008년)	ICT(1998년→2008년)	
선진 8개국	96.0	69.7	104.6
신흥 11개국	88.3	17.9	55.6

주: 미국=100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토대로 재구성

⁹⁾ Felicitas, Nowak-Lehmann. D, Dierk, H & Boriss, S. (2006). Export-Led Growth in Chile: Assessing the Role of Export Composition in Productivity Growth. *The Developing Economies*, 44(3), 306-328.

¹⁰⁾ 태양광 분야의 글로벌 리더 중 하나인 중국 썬테크파워는 2009년 R&D에 2008년의 2배 이상인 2,9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기술혁신을 주도

¹¹⁾ 기술흡수력은 최신기술 사용 가능 여부, 기업기술 도입 수준, FDI에 의한 기술전수로, ICT 사용 능력은 인터넷유저 수,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 인터넷 대역폭, 유선전화 수, 모바일폰 이용자 수로 평가

(4) 노동과 자본 투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 신흥국은 노동력 부족현상에 직면한 선진국 경제와는 달리 향후에도 노동인력 공급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신흥국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

• 2020년 인구증가율¹²⁾: 선진국(0.21%), 신흥국(1.15%)

• 노인부양비율 변화(2000→2030년): 선진국(24→36%), 신흥국(10→15%)

선진국과 신흥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선진국	67.3	67.7	67.5	66.1	64.7	63.3	62.1
신흥국	61.8	63.6	65.0	65.7	65.8	66.1	66.3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신흥국 성장을 견인해온 자본투입은 향후에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

- 향후에도 경상수지 흑자, 오일머니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대 등에 힘입어 자본투입여력이 꾸준히 증가

• 2010년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 4,000억달러로 세계 최대이며, BRICs는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약 40%를 차지

- 2009년 상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고 투자가의 리스크 선호 경향이 회복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

• 주식·채권에 의한 자금유입액은 2009년 920억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7년 870억달러)을 회복

¹²⁾ 특히 일본과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2020년 전체 인구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일 전망: 일본(-0.34%), 독일(-0.23%), 이탈리아(-0.07%)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 종합판단

신흥국 경제의 위험요인에도 주목

-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신흥경제권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자산시장 등에서 버블이 발생할 우려
 - 미국 등 선진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를 지속하는 한편 양적완화정책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 FRB는 1조 7,000억달러 규모의 1차 양적완화정책에 이어 2010년 11월 FOMC에서 6,000억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정책을 발표
 - 선진국 내에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버블 발생으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
 - 향후 선진국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면 자금이 다시 유출되면서 버블이 붕괴되어 신흥경제권에 충격이 발생할 위험
- 신흥경제권 내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과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음
 - 자국 이기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신흥경제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역내교역 확대 등 상호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을 제약할 소지
 - 신흥경제권 내부의 산업단계 차이, 수출의존형 성장전략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은 신흥국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일부 신흥국에서는 정치체제의 불안정,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이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할 우려
 -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또는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경우 경제의 지속성장이 위협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속성장이 가능

- 선진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겠지만, 성장모형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
- 선진국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對선진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감소가 불가피
 - 내수시장의 성장, 역내교역의 확대 등이 선진국 수요 위축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이 가능
 - 향후 선진국 경제회복 시 신흥국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신흥국의 성장동력에 대한 종합 판단

부문	현재 상황	향후 전망	종합판단
내수시장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중	점진적으로 확대	○
수출	對선진국 수출의존도 높음	신흥경제권 내 역내교역 확대	△
노동/자본	풍부한 노동력, 자본 축적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	◎
생산성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빠른 속도로 추격	◎

주: ◎ 낙관적 ○ 다소 낙관적, △ 중립적, × 비관적

3. 중장기 신흥국 경제성장 전망

G20 내 신흥 11개국은 2020년까지 연평균 6.8%의 고성장 지속

- 2011~2020년 G20 소속 신흥 11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6.8%로 G20 내 선진 8개국(G7과 호주 포함)의 성장률 2.2%를 압도할 전망
- 신흥·개도국 중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세계 경제질서에 미치는 중요성이 높은 국가인 G20 내 신흥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성장회계 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통해 성장률을 추정
 - G20 내 신흥 11개국의 GDP 규모는 전체 신흥·개도국의 69.4% 수준 (2009년 현재, 시장환율 기준)¹³⁾

¹³⁾ Global Insight

분석대상 및 추정과정

- ▷ G20 내 선진 8개국(G7+호주)과 나머지 신흥 11개국을 각각 선진 및 신흥국으로 분류
- ▷ 향후 10년간 국별 노동인력, 자본스톡, 생산성의 구조적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국별 그리고 경제권별 성장률을 추계
 - 추정에 사용된 생산함수는 $\Delta Y = \Delta P + (1-a)\Delta L + a\Delta K$ (ΔY =연간 변화율)
Y:GDP, P:생산성, L:노동 투입, K:자본투입
- ▷ 생산함수에 사용하는 파라미터와 변수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을 반영
 - 자본수익률 a의 경우 2008년까지 각국의 투입요소가 GDP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수치인 선진국 1/3, 신흥국 0.4를 각각 적용
 -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실업률, 재정수지, 저축률 등의 국별 변화 정도를 노동인력, 자본스톡의 증감을 통해 추정에 반영

신흥국 경제판도: 친디아 주도와 '뉴 빅3(MTI)'의 등장

- 중국과 인도가 각각 세계 1위와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신흥국 경제성장을 주도
 -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후 2034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할 전망¹⁴⁾
 - 2034년 GDP 전망: 중국(23조 8,000억달러), 미국(23조 4,000억달러)
 - 인도는 2030년에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3위의 경제대국화
- 현 BRICs의 일원인 브라질은 성장활력을 유지하는 반면, 러시아는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 브라질은 노동 및 자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생산성이 제고

¹⁴⁾ PPP 환율 기준으로는 2020년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82.1%까지 추월하고 2026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면서 세계 1위에 등극

-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생산효율 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빠르게 성장했던 러시아는 향후 노동력 감소로 성장세 둔화를 경험

BRICs 국가의 향후 10년간 투입요소 증가율 및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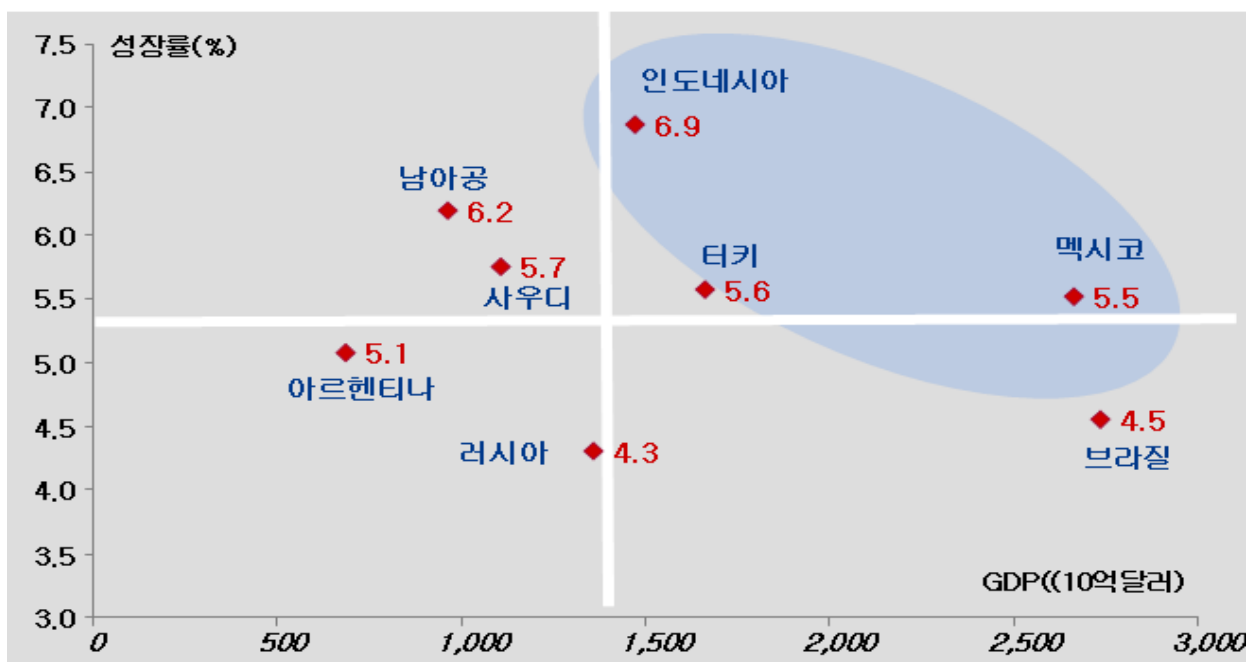
구분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률
중국	0.1	7.0	1.5	8.7
인도	1.5	7.4	1.4	8.2
브라질	0.9	4.5	1.3	4.6
러시아	-1.3	3.5	1.3	4.3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추정

□ 2030년에는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의 '뉴 빅3(MTI)'가 BRICs를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

- '뉴 빅3'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5% 이상 고성장하며 BRICs를 추격
- 이들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제조기반과 소비시장을 겸비

신흥 8개국 GDP 규모 및 성장률 전망



주: 중심축은 GDP 규모 및 성장률의 평균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전망

Ⅲ. 신흥경제권 부상 의미

1.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신흥경제권 부상으로 선진국 주도 체제가 약화

□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가 변화

- 기존 선진국 중심의 G7이 아니라 신흥국이 대거 포함된 G20을 통해 글로벌 공조가 형성

• G20 가운데 11개 국가가 신흥국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미국 등 선진국 주도 체제가 약화

-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신흥국 지분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흥경제권의 위상이 제고

• 2010년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 및 11월 5일 IMF 집행위원회에서 IMF의 선진국 지분 중 6%를 신흥국에 이전하기로 합의

IMF 주요국 의결권 지분율 현황

(단위: %)

구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중국	한국
현행	16.73	6.23	5.80	4.29	3.15	4.29	2.55	2.39	3.81	1.36
이전 후	16.47	6.14	5.31	4.02	3.02	4.02	2.21	2.59	6.07	1.73
변동 폭	-0.25	-0.09	-0.50	-0.26	-0.14	-0.26	-0.34	+0.2	+2.27	+0.37
GDP 비중	21.6	7.3	5.2	4.2	3.4	4.0	2.3	2.7	8.1	1.9

주: GDP 비중은 시장환율 기준 GDP 60% 및 PPP 환율 기준 GDP 40%를 반영

자료: IMF (2010. 11. 5.).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Major Overhaul of Quotas and Governance. Press Release.

□ 향후 G20이 세계 경제질서를 논의하는 최상위 협력체로 작동할 전망이므로 선진국 중심의 현 세계경제 패권구도의 변화가 예상

- 신흥경제권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신흥국을 배제하고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의 패권구도는 일극 체제에서 양극 또는 다극 체제로 전환
 -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과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미국과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

경제권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역주의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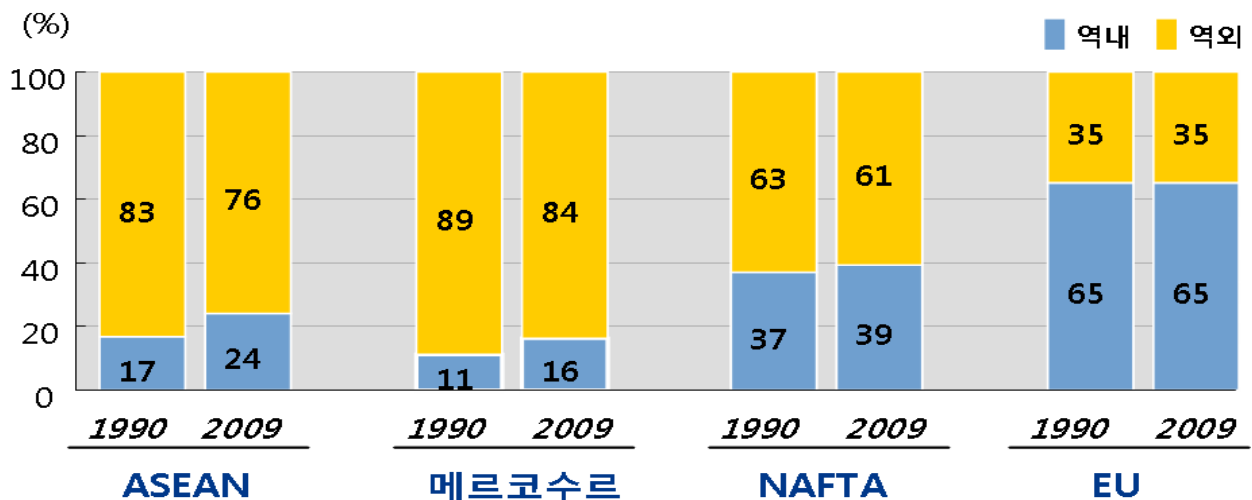
-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신흥경제권이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경제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조정도 쉽지 않을 전망
- 선진경제권과 신흥경제권은 산업별 경쟁력 및 성장전략이 상이하여 이해 조정이 어려운 상황
 -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경제권 간 이해절충에 실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 상태
- 경제위기 이후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이 수출확대 전략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해갈등이 심화
 - 미국은 위안화 절상 등 환율전쟁을 주도하면서 수출 확대를 통해 자국 내 고용과 경기 회복을 추진
- 다극화된 세계질서하에서는 일극구조에서보다 이해조정이 어려워져 갈등이 장기화될 소지¹⁵⁾
 - 특히 세계 경제질서의 양극을 형성하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 지적재산권 보호,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

¹⁵⁾ 패권국은 거시경제정책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담보하는 역할 등을 수행 (Kindleberger, C. P. (1986).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Rev.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신흥경제권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 흐름이 강화될 전망

- 과거에는 선진국 간(EU),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NAFTA) 경제통합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신흥국 간 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진행
 - 남미에서는 남미 12개국 이 전원 참여하는 남미 국가연합(UNASUR)¹⁶⁾ 창설 협의가 본격화
- 미주 지역이나 유럽에 비해 경제통합 수준이 낮았던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 지역 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 과거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낮고 對선진국 수출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실현될 경우 EU, NAFTA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경제블록이 형성
- 지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역내교역이 활성화될 전망
 - ASEAN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7%에서 2009년 24.3%로 증가

주요 경제블록의 역내 및 역외 교역 비중



자료: Bloomberg

¹⁶⁾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인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4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인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5개국 외에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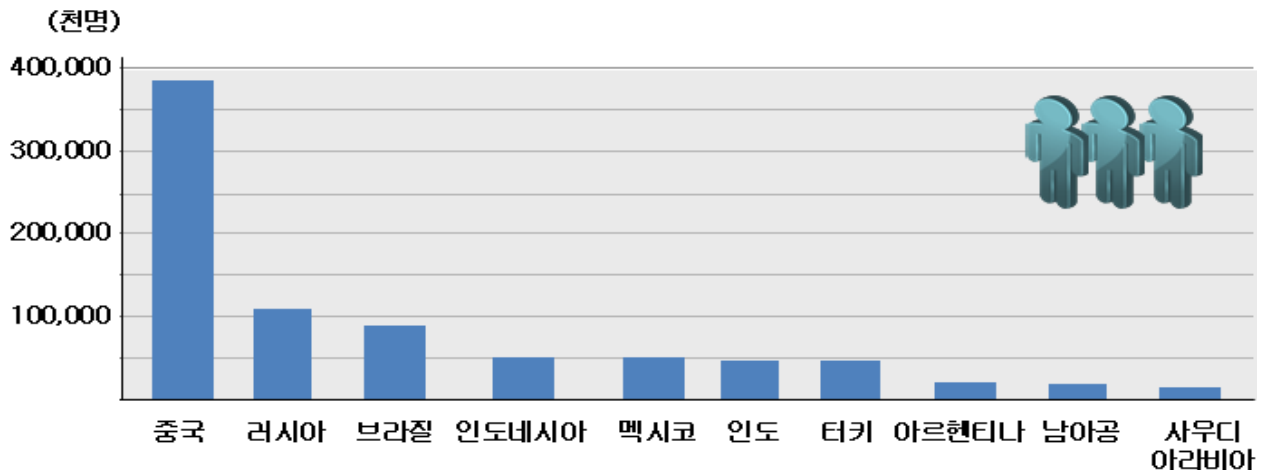
2. '중간시장(Middle Market)'의 부상

현 '중간시장' 규모는 8억 5,000만명¹⁷⁾

□ BRICs 국가 등 신흥경제권의 '중간시장'이 세계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

- '중간시장'이란 신흥경제권의 중산층 시장을 지칭
- 현재 '중간시장'의 총 규모는 약 8억 5,000만명으로 추산
 - 자동차 구매가 가능한 소득 수준인 1인당 GDP 2,500달러를 기준으로 파악

신흥 10개국의 소득 2,500달러 이상 인구 수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DB.

- 신흥경제권에서 개인소득 1만달러 이상의 중소도시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매력 있는 시장으로 부상¹⁸⁾

중국의 2009~2011년 1인당 GDP 1만달러 신규 진입 도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도시명 (인구, 만명)	베이징(1,300), 다롄(583)	톈진(969), 선양(714), 난징(625), 창저우(359)	둥관(175), 칭다오(762)

자료: 瀬口清之(2010. 9.). "中堅・中小, サービス産業中心 始まった第4次對中投資ブーム." 『エコノミスト』.

¹⁷⁾ G20 내 신흥 11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10개국(남아공,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¹⁸⁾ 중국은 2011년 1인당 GDP 1만달러 이상 지역의 인구가 1억명을 상회할 전망

'중간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전략이 변화

- 글로벌 기업 간 '중간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의 기업 전략이 다양하게 변화될 가능성

- 첨단기능의 최고 품질에 수려한 디자인을 더한 고부가제품에 주력하던 선진기업이 '저가격 + 적정 수준 품질'의 중간형 제품개발에 박차

초저가 소형차 경쟁에 합류한 닛산의 '마치'

- ▷ 닛산은 2010년 7월, 80만엔대 이하의 신형 자동차 '마치'를 인도에서 출시
 - 닛산은 현지에서 부품과 소재의 90%를 조달하고 부품 개수를 20% (기존 3,500개 → 2,900개) 줄여 원가를 절감하고 무게를 10kg 감량
 - 고가의 기존 철판 대신, 신흥국의 저가 철판을 사용하고, 차체의 강도 유지를 위해 제품 설계까지 변경

(자료: 井眞粧美 外 (2010. 9. 11.). "新興國を制するものが世界を制す「80萬円車」の攻防." 『ダイヤモンド』.)

- 반면, 저가제품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기업은 선진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해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중간시장'을 공략

- '중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저가화 기술, 운영능력(외부와의 협력, 현지 조달 및 개발 능력), 제품 풀 라인업(Full-line up) 등의 중요성이 부각

-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가격과 고품질을 동시에 추구

- 인도 Encore Software는 태양전지로도 구동하는 200달러대의 저가 PC 'Mobilis'를 개발¹⁹⁾

- 주력시장의 변화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간형 저가제품에서 초고가제품까지 제품 스펙트럼을 다양화

¹⁹⁾ 近藤正規 (2010. 9. 6.). “「Nano家電」が續續登場擴大する超低價帯ビジネス”. 『日經エレクトロニクス』.

3.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도권 변화

글로벌 자금흐름 구조가 변화

□ 신흥경제권의 성장 및 역내교역 확대로 美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었던 '달러화 리사이클링 구조'에 변화가 발생

- 경제위기 이전까지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웃도는 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을 이용해 글로벌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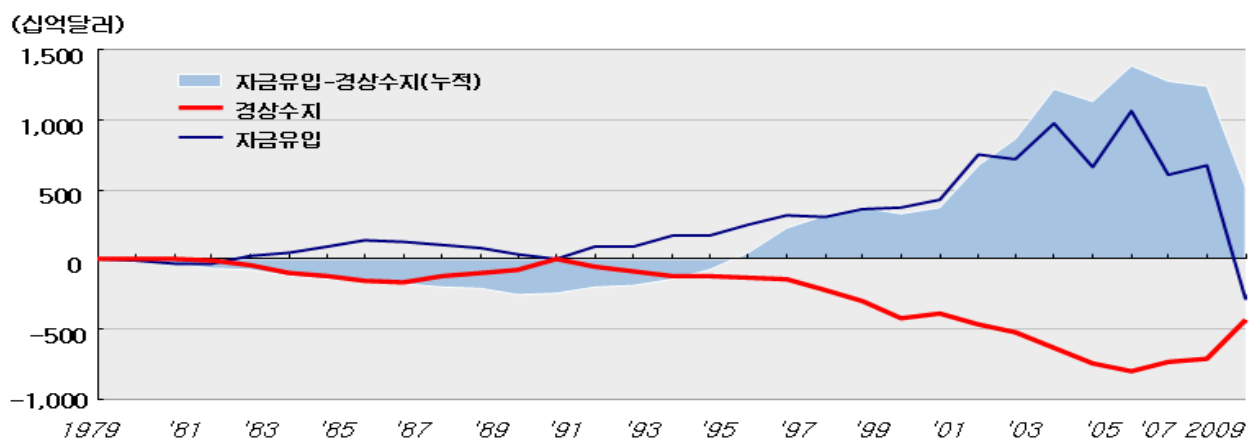
• 1991~2006년 기간 중 2000년, 2005년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규모가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상회

- 신흥경제권의 지속성장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으로 달러화 리사이클링 구조가 약화되어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될 전망

• 신흥국의 내수시장 의존도 증가, 역내교역 증가, 선진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對선진국 수출 의존도가 감소

• 역내 금융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對선진국 금융투자 필요성이 약화

외국인의 對美 순투자 및 미국의 경상수지 추이



자료: U.S. Department of Treasury, 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System.

□ 선진국 금융기관은 체력 약화, 자본확충 부담 증가 등으로 당분간 자산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하기가 어려움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은 부실자산비율이 여전히 높으며, 경기부진으로 개선 전망도 불투명
 - 부실자산비율은 미국은행이 5.6%(2010년 2/4분기), 유럽은행이 5.5% (2010년 추정)로 위기 이전(2007년)보다 각각 4.3%p, 3.1%p 상승
-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으로 자기자본 확충 부담까지 더해져 자산확대가 곤란
 -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경우 2014년까지 북미 및 유럽 기업은행과 글로벌 투자은행은 자기자본규제 강화로 약 3,0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²⁰⁾

신흥국 금융산업의 고성장

- 신흥경제권의 고성장은 금융투자 기회의 증가로 이어져 신흥국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
 - 내수시장 확대와 고성장 등이 금융수요와 투자기회를 창출
 - 2010~2014년 중 글로벌 은행 수익 증가분의 38%가 아시아 금융시장의 성장에서 발생할 전망²¹⁾
 - 신흥경제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기회는 신흥국 금융기관에 더 큰 성장기회를 제공
 - 2009~2014년 중 중국 및 인도 은행의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9.2~12.8%, 6.5~16.3%로 선진국 은행을 압도²²⁾

²⁰⁾ Bowers, T. et al. (2010). The Next Normal - Banking after the Crisis. McKinsey & Co.

²¹⁾ 미주는 33%, 유럽은 23%를 차지(Rodeia, P. (2010). Asian Financial Sector - The Changing Landscape. McKinsey & Co.)

²²⁾ 중간 시나리오(침체 이후 위기 이전의 추세보다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모든 자산시장이 회복되며 규제는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와 극단적 시나리오(침체 이후 세계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진입하고 자산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며 안정성에 중점을 둔 규제에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가정 (Bowers, T. et al. (2010). The Next Normal - Banking after the Crisis. McKinsey & Co.)

IV. 시사점

신흥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

□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권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신흥국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를 점진적으로 극복

- 신흥경제권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흥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

· 신흥경제권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탈피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

- 특히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국은 막대한 내수시장을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전망

· 중국 및 인도 경제가 G20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각각 16.3% 및 5.0%로 추정

□ 신흥경제권의 내수 비중이 높아지고 역내무역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교역불균형이 완화

- 신흥경제권은 내수시장의 성장,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통화가치 조정 등으로 선진경제권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

· 신흥경제권 역내 교역이 증가하여 상호보완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형은 지속 가능

- 신흥경제권의 역내무역 활성화로 미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완화

글로벌 어젠다 설정에 적극 참여

□ 전 세계가 공동 대처해야 할 글로벌 어젠다의 설정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

- 금융위기 이전에는 선진국이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결정을 주도
 -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요구
-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어젠다 설정에도 신흥국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될 전망
 - 이미 신흥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 진행 중이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개발의제가 새로운 어젠다로 상정

□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서울 G20 정상회의 및 이후 국제공조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
- 양 경제권이 동의할 수 있는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함으로써 공통의 이익 증진에 기여
 -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제안한 보호주의 동결, 개발의제 등의 어젠다는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

신흥국 부상의 위험과 기회에 대비

□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세계 경제질서 변화의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신흥경제권 블록 강화에 대비하여 FTA 등을 통해 교역 네트워크를 확대
 - 인접한 아시아 경제권뿐만 아니라 지리적 한계를 넘어 중남미 및 중동 시장 등의 성장기회를 활용
- '중간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업전략을 수립
 - 산학협력 등을 통해 신흥국의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 촉진

□ 신흥국의 성장은 한국경제에 제2의 도약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

- 신흥국의 인프라 및 제조업 기반 건설 수요 확충에 따라 전통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가능성
 - 최근 경제위기 이후 신흥국은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인프라 건설에 집중
- 철강, 화학 등 전통산업의 기반이 강하고 IT 산업 등 첨단산업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가능성

□ 신흥경제권 고성장의 이면에 잠재한 위험요인에 대해 대비할 필요

- 선진경제권의 양적완화정책 등으로 발생한 과잉유동성의 유입으로 신흥경제권 금융시장 등에서 버블이 발생할 위험
 - 내수성장 등 펀더멘털 개선을 벗어나 단기성 투기자금에 의해 금융시장이 과열될 위험이 상존
- 투기성 자금의 과다유입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여타 신흥국의 버블 발생 및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
 -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투자의 과도한 집중 등에도 유의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11. 2	11. 3	11. 4	11. 5	11. 8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113.60	1,110.20	1,107.50	1,107.30	1,113.50
	엔/달러(뉴욕시장)	80.515	80.670	81.040	80.760	81.285
	달러/유로(뉴욕시장)	1.39040	1.40320	1.41250	1.42140	1.40530
금리	회사채(3년AA-, %)	4.16	4.18	4.25	4.35	4.32
	국고채(3년, %)	3.43	3.43	3.50	3.60	3.55
	CD (91일, %)	2.66	2.66	2.66	2.66	2.66
	LIBOR (3개월, %)	0.28594	0.28594	0.28563	0.28563	0.28563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82.24	82.90	84.70	..	85.04
	WTI(S, \$/배럴)	83.87	84.75	86.54	86.86	87.07
	CRB 현물가격지수	490.22	493.04	499.51	499.80	..
주가지수(KOSPI, 증가)		1,918.04	1,935.97	1,942.50	1,938.96	1,942.41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81	79	77	74	..

< 월별 지표 >

	2008년	2009년	2010.6월	2010.7월	2010.8월	2010.9월	2010.10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¹⁾	3.4	-0.9	17.7	16.0	17.2	4.0	..
평균가동률	77.5	74.6	84.0	84.8	81.6	81.5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6	2.0	4.7	3.2	4.3	-0.7	..
실업률	3.2	3.6	3.5	3.7	3.3	3.4	..
실업자(만명)	76.9	88.9	87.8	93.1	83.1	85.7	..
총취업자 수(만명)	2,357.7	2,350.6	2,428.0	2,430.1	2,400.5	2,405.4	..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2.8	2.6	2.6	2.6	3.6	4.1
생산자물가 상승률	8.6	-0.2	4.6	3.4	3.1	4.0	..
생활물가 상승률	5.4	2.1	2.8	2.7	2.6	4.1	4.8
수출(억달러, FOB) ²⁾	4,220.1	3,635.3	420.7	406.7	370.9	395.1	..
(증감률)	(13.6)	(-13.9)	(30.6)	(27.5)	(28.1)	(16.5)	..
수입(억달러, CIF)	4,352.8	3,230.9	354.0	354.2	352.6	349.8	..
(증감률)	(22.0)	(-25.8)	(37.8)	(28.0)	(28.6)	(17.5)	..
외환보유액(억달러)	2,012.2	2,699.9	2,742.2	2,859.6	2,853.5	2,897.8	2,933.5

1) 통계청 (2010. 10. 29.) “2010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0. 10. 18.) “2010년 9월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의거하여 작성

< 분기 지표 >

	2008년	2009년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2010년 3분기
GDP 성장률 ¹⁾	2.3	0.2	1.0	6.0	8.1	7.2	4.5
민간소비	1.3	0.2	0.7	5.8	6.3	3.7	3.3
설비투자	-1.0	-9.1	-7.0	13.3	29.9	30.2	29.9
건설투자	-2.8	4.4	4.4	5.0	2.3	-2.9	2.3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38.5	53.2	52.6	53.2	51.9	52.7	52.2
SERI 경제행복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0.731	0.640	0.614	0.640	0.728	0.801	..
개인금융자산(조원) ²⁾	1,683.7	1,946.5	1,914.8	1,946.5	1,998.0	2,045.5	..
개인금융부채(조원)	802.3	854.8	836.6	854.8	863.6	877.7	..
재정수지(조원)	11.9	-17.6	-25.7	-17.6	-7.0	-11.4	..
경상수지(억달러)	-57.8	426.7	104.0	105.6	13.4	103.3	120.5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³⁾	3,779	4,019	3,974	4,019	4,112	4,074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08년	2009년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2010년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¹⁾	0.0	-2.6	1.6	5.0	3.7	1.7	2.0
	실업률 ²⁾	5.8	9.3	9.8	10.0	9.7	9.5	9.6
	소비자물가 ²⁾	3.8	-0.4	-1.3	2.7	2.3	1.1	1.1
일본	GDP 성장률 ¹⁾	-1.2	-5.2	-0.3	3.4	5.0	1.5	..
	실업률 ²⁾	4.0	5.1	5.3	5.2	5.0	5.3	5.0
	소비자물가 ²⁾	1.4	-1.4	-2.2	-1.7	-1.1	-0.7	-0.6
유로 지역	GDP 성장률 ¹⁾	0.6	-4.1	0.4	0.2	0.3	1.0	..
	실업률 ²⁾	7.5	9.4	9.8	9.9	10.0	10.1	10.1
	소비자물가 ²⁾	3.3	0.3	-0.3	0.9	1.4	1.4	1.8
중국	GDP 성장률 ¹⁾	9.6	8.7	9.1	10.7	11.9	10.3	9.6
	실업률 ²⁾	4.2	4.3	4.3	4.3	4.2	4.2	..
	소비자물가 ²⁾	5.9	-0.7	-0.8	1.9	2.4	2.9	3.6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